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9. 12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사무관 한은정(032-453-7391)

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 추진

인천경제청, 성광의료재단(차병원)과 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특화병원 양해각서 체결
세포치료·안티-에이징(항노화)·난임 치료 메카 구축...인천시투자유치기획위 심의 통과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글로벌 특화 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체결식에서는 차원태 차병원·바이오그룹 전략기획총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용 청장과 김춘복 성광의료재단(차병원) 이사장이 사인했다.
- 양해각서의 내용은 인천경제청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차병원은 글로벌 특화병원의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세부 건축계획을 마련한다. 또 양 기관이 글로벌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.
- 글로벌 특화 병원은 송도국제병원 부지(I-11, 송도동 28-1)에 글로벌 세포치료·안티 에이징(항노화: Anti-aging)·난임 치료 메카를 구축하는 것이다. 차병원이 난임전문병원, 임상시험센터, 줄기세포치료센터, ‘바이오-셀 은행(Bio-cell Bank)’ 등의 의료시설과 의과학대학 일부 학과와 학생들이 이전하는 차의과학대학 송도캠퍼스, 차바이오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설,

시약 생산시설 등을 계획 중이다.

- 인천경제청은 (주)인천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공공 특수목적법인(SPC)를 설립해 부지를 매입, 건물을 건축하고, 차병원에 병원 건물을 임대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.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“지난 8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 사업은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영리병원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”고 밝혔다.
- 현재 국제병원 부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(NSIC) 소유로 20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인근 상권 등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. 하지만 이 부지는 중앙부처가 승인한 종합병원 부지로 병원을 제외한 용도 변경이 어렵다. 또 IFEZ(인천경제자유구역)에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청라아산병원 등 각각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돼 추진 중이다.
- 인천경제청은 이에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한계가 있어 진료과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있는 특화된 진료과목 중심의 중소형 종합병원을 유치기로 했다.
- 성광의료재단은 인천경제청이 재무 건정성을 체크하기 위한 신용정보 평가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 약 7,430억원, 매출액이 약 8,266억원에 이르며 신용능력이 양호한 A+등급으로 확인됐다.
- 차병원은 세포치료와 난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. 국내 유일 배아줄

기세포치료 임상 허가를 받았으며 세포배양 관련 8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. 특히 차병원은 세포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운영중인 도쿄 셀 클리닉(Tokyo Cell Clinic)에서 세포 치료 진료 실적 5,000회를 축적하며 국내 어떤 의료기관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.

- 또 국내 민간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와 나팔관 아기 시술을 성공시켰으며 급속냉동 방식으로 난자를 얼리는 난자동결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했다. 호주 등 해외에 24개, 국내에 5개의 난임 센터를 운영중이다.
- 김진용 청장은 “글로벌 특화병원은 국제병원 부지를 더 이상 나대지로 놔둘 수 없고 송도세브란스병원·청라아산병원 등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세포치료, 안티 에이징, 난임 등 미래 의료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사업”이라며 “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송도국제도시 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:30~10:55)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 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글로벌 특화병원 유치 양해각서 체결

□ 추진배경

- 송도국제도시내 I-11부지1)는 중앙부처가 정한 개발계획에 따라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된 상태로 병원을 제외한 타 용도 변경이 어려움
- 인천시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NSIC 소유의 부지 가격은 금융비, 세금으로 연일 가산되고 있어 조속한 개발 필요
- IFEZ 내 세브란스병원, 청라아산병원이 유치됨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 의료산업트렌드와 외국인 환자 진료분야에 경쟁력있는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 필요

□ 글로벌 특화병원 단지 조성 개요

- 사업 컨셉 : 글로벌 세포치료·안티에이징·난임 치료의 메카 구축
- 부 지 : 송도국제도시 I-11블록(80,719m²/24,000평)
- 추정사업비: 약 1조 5,000억원
- 운영관심사: 차병원·바이오그룹
- 시행방안(안)
 - (주)인천투자펀드 출자로 공공 SPC 설립
 - SPC : 부지 매입, 사업 시행(분양 및 병원 건축)
 - 병원운영사 : 병원 건물 임대 사용
- 주요시설 : 의료시설, 교육·연구시설, 산업시설, 지원시설

□ 도입시설

구분	도입시설	비고
의료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차움(Beauty & Anti-aging 전문) ▸ 난임전문병원(유전체검진센터,30년자은행), ▸ 임상시험센터, 줄기세포치료센터 ▸ BIO-cell Bank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질환·미용 종합 세포 치료 병원 ▸ 해외국가 수준의 규제완화 필요 ▸ 초저출산문제 해결 사업
교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차의과학대학교 송도캠퍼스(바이오관련 학과, 대, 약대, 의전원 실습공간) ▸ 차바이오 사이버대학(야탑 추진중, 향후 이전 검토) ▸ 생식의학 전문 연구원(Training Center) 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간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차의과학대학 송도 캠퍼스는 법적으로 가능, 교육부 승인 要
연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바이오 종합연구소 및 실험동물센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해외 연계
산업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글로벌제약사 시약 생산시설 및 바이오벤처기업 집적으로 생산역량 보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차그룹 산하 바이오·헬스케어 기업 집적화
지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공원·문화시설 및 근생시설 	

□ 양해각서 양기관의 역할 및 업무

제2조	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	<p>① 인천경제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 - 글로벌 특화병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- 기타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등 <p>② 성광의료재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특화병원 컨텐츠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마련 - 주요 시설 관련 건축 세부계획 마련 - 글로벌 특화병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 지원
제5조	유효기간	체결일로부터 2년

□ 부지 개요

- 면 적 : 80,719m²(약 24,000평)
- 건폐율/용적율 : 70%/250%
- 용 도 : 외국의료기관 혹은 국내의료기관(종합의료시설)
- 소 유 : NSIC(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)
 - 인천시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지 매각 조건 협약 체결(201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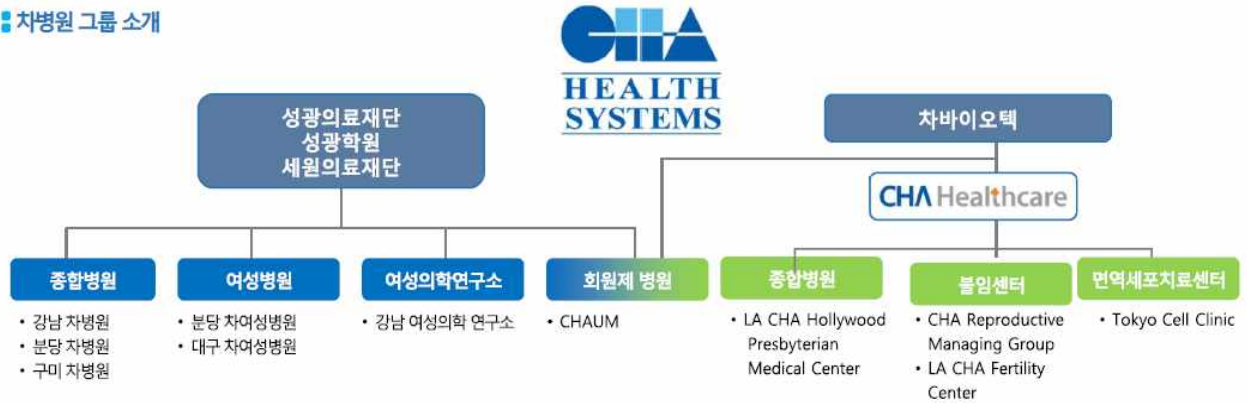
□ 송도국제병원 부지 투자유치 이력

- '06.04 : 재정부, 뉴욕장로병원(NYP) MOU 체결
- '08.09 : NYP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
 - 설립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 등 제도미비로 협상 종료
- '08.12 : 업무인계 : 지경부→인천시(경제청)
- '09.11 : 병원 운영 MOU 체결(인천시, 존스홉킨스, 서울대)
 - 임상 연구 및 서울대병원 협력 진료 및 위탁운영
- '10.03 : 병원 건립 MOU 체결(인천시, Cordish, 도개공)
 - 운영구조, 수익부지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인천시와 이견으로 협상 종료
- '11.03 : 인천시, 공모로 ISIH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삼성물산 컨소시엄)
 - 인천시, 공공주택용지 수익부지 제공으로 건축비 지원 전제
- '13.05 : 인천시, 삼성물산 우선협상 MOU 해지
 - 인천시, 비영리종합병원 추진 방침 선회
- '14.09 : 한진그룹 의료복합단지 투자 MOU 체결('15.1월 해지)
- '18.08 : 경제청, 국내의료기관 허용 건의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
 - 외국의료기관(영리병원) 및 국내의료기관 입주 허용

□ 차병원 · 바이오 그룹

○ 차병원·바이오그룹 현황

■ 차병원 그룹 소개



○ 주요시설 현황

연번	사업체명	규모및분야	특 징
1	일산차병원	400병상	아시아 최고 글로벌 여성병원
2	강남차병원	300병상	1984년 설립된 한국 최초 여성병원
3	분당차병원	1,000병상	35개 진료과, 20개 센터, 470명 의료진
4	분당차여성병원		부인과 및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 치료
5	구미차병원		경북 최초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
6	차여성의학연구소(난임센터)		200여명 이상 연구원과 전문의료진 연구
7	LA 할리우드 차병원	434병상	국내 병원 해외 역 진출 1호 종합병원
8	Tokyo Cell Clinic		세포배양시설을 갖춘 면역세포치료 병원
9	차움	-	프리미엄 건강검진, 토탈 뷰티케어
10	차의과학대학	12개 학과	608명 교수진, 4,100명의 재학생
11	제1 판교 테크노벨리	연면적 66,000m ²	국내 최대 바이오 연구소
12	제2 판교 테크노벨리	면적 9,308m ²	세포치료제 연구소 및 제조시설
13	차바이오텍	바이오/광학	통합줄세포은행, 제대혈 보관 및 활용
14	차바이오 F&C	식품/화장품	고순도 바이오 소재 이용 화장품 생산
15	차메디텍	의료기기	성형 필러, 유착방지제 등 생산 및 판매
16	CMG 제약	제약	전문의약품, 표적·면역항암제 투자

□ **신용정보 요약**(NICE 평가정보: 2022년 12월 기준)

구분	내용
기업명	성광의료재단(비영리단체)
대표자명	김 춘 복
소재지	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66
설립일자	1990. 10. 16
홈페이지	www.charm.co.kr
표준산업분류	종합병원
종업원수	4,541명
자본금	약 199억원
자산총계	약 7,430억원
매출액	약 8,266억원
평가등급	A+ (신용능력이 양호하며, 환경병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적인 기업)
현금흐름등급	CF2 (현금흐름의 건정성에 따라 지급(상환) 능력이 양호함)

□ **특화 분야**

○ **줄기세포 치료**

- 국내 유일 배아줄기세포치료 임상 시험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배아, 성체줄기세포, 면역세포 및 항노화 등 통합 연구 가능
- 세포배양관련 88개 특허 보유, 세계 최초의 세포동결보관기술 보유
- NK 세포 배양기술을 경쟁력으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정식 운영 허가를 받은 일본 Tokyo Cell Clinic 치료 경험 5,000회 축적

○ **세계 최대 규모 세포·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급망 구축 계획**

-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3,000억을 투입하여 세포·유전치료제 GMP¹⁾ 설비를 구축중이며 이 분야에서 단일 시설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임
- 세포·유전자 치료제 CDMO²⁾사업은 글로벌 선점이 필요한 분야로 아시아 전진기지 구축 필요, 차병원의 전문 기술과 연구 개발 경험 투입해 확장 예정

1) GMP(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): Good Manufacturing Practice

2) CDMO(위탁개발생산) :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

○ 난임 시술 분야

- 1984년 강남차병원 부속 난임센터를 개원, 국내 민간병원 최초 시험관 아기, 나팔관 아기 시술 성공함
- 세계 최초 성공 기술 보유(유리화 동결 난자 이식, 세계 최초 폐기 난소 미성숙 난자 배양 및 이식 등)
- 현재 국내 차병원에 난임 관련 550여명의 의료인 보유
- 호주 등 해외에 24개, 국내에 5개 난임센터 운영중
- 연간 국내 시험관아기 약 4만건 시술로 전체의 1/3이상 차지함

□ 기대 효과

- 치료 대안이 없는 희귀질환, 암 등 중증 질환 치료 가능성 확대
- 국내 저출산 및 인구 절벽 문제 관련 해결에 기여
- 일본 등 해외 세포 치료 외국인 환자 및 국내 환자 유치 효과
 - 연간 약 5,000여명 세포 치료 예상
 - 약 3,900억원 진료 매출 예상

<참고> 국제병원 부지 필지도

